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보도자료	2025. 12. 17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김경익	☎ 760-7510
		업무담당자	고희열	☎ 760-751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

- 최근 도내 공공기관 사칭해 위조 공문서로 선입금 요구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고상환)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 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 -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.
-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,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(12월 5일),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(12월 17일)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.
 -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,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.
-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,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.
 -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,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.
 -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(☎112) 또는 금융감독원(☎1332)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.

-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은 “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” 며 “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